

#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고 영진

— 차례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
| 2. 제주도 방언의 상 관련 | 상 체계            |
| 용어와 개념 재검토      | 4. 맺는 말         |

〈버리〉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상 범주를 형태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를 검토한 것인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에 사용된 용어 및 그 개념 문제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업적들에서는, 상 관련 용어들이 엄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을 다룬다면서도 실은 시제를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 관련 용어로 완전상, 불완전상(및 완료상)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그 개념은 Comrie(1976)와 구도(1995)를 따라, 사건의 진행에서 「시작-전개-종료」라는 각 국면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한 덩어리로 파악하는 것(완전상), 사건의 시작 및 종료 단계를 무시한 중간 단계, 즉 장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것(불완전상), 그리고 특정한 기준 시점에서 그보다 전에 실현된 운동이 계속 관여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완료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로는, 「-는-」에 의해 표현되는 완전상과, 「-암시-」로 표현되는 불완전상, 그리고 「-아시-」가 나타내는 완료상을 설정할 수 있다.

주제어: 상, 완전상, 불완전상, 완료상

##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의 목적은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aspect) 범주를 체계화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의 상에 관한 연구는 여타의 문법 범주들에 비하여 비교적 뒤늦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분야이다. 상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했던 초창기의 업적들은 논외로 한다면, 시제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범주로서의 상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던 것이다(이 남순 1990 : 382~383).

제주도 방언의 상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이 승녕(1957/1978)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연구의 시작은 표준 한국어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늦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 방언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편을 쥐고 있는 현 평효의 박사 학위 논문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1974)에서도 상은 주요한 주제의 하나였으며,<sup>1)</sup> 그 이후에도 상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만 해도 두 편이나 나왔을 정도로<sup>2)</sup> 상은 비교적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다.

그 과정에서 얻은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라면,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시제로 다루어지던 문법 요소들이 현 평효(1975/1985)에 의하여 실은 시제가 아니라 상(그의 용어로는 동작상)을 나타내는

---

1) 이 논문은 1975년에 아세아 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가, 현 평효(1985)에 다시 거두어 실렸다. 이 글에서는 후자를 이용하였는데, 앞으로는 현 평효(1975/1985)로 적기로 한다.

2) 현 평효(1975/1985) 이후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으로, 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홍 종립(1991)과 우 창현(1998)이다. 이 가운데 홍 종립(1991)은 상과 양태(modality)를 함께 다룬 것이고, 우 창현(1998)은 오로지 상에만 주목한 연구이다.

것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평효(1975/1985)의 주장은, 이후에 이 남덕(1982), 홍 중립(1991), 문 숙영(1998), 우창현(1998)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정·보완이 되었고, 논의 또한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주도 방언의 상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3)</sup>

1.2. 본고는, 제주도 방언의 동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용사나 지정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의 상 표지로 알려져 온 「-아시-」와 「-암시-」가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논자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은, 장면(situation)의 내적인 시간 구성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sup>4)</sup>을 뜻하기 때문에, 시간적 전개성이 없는 형용사나 지정사와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구도 마유미 [工藤眞由美] 1995: 25~26).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간 속에서 성립(발생)하여, 전개해 가다가, 언젠가는 소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남기는 동적인 사건”(구도 1995: 25)을 표시하는 동사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주도 방언 연구에서 상 표지로 들고 있는 것들에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암시-」와 「-아시-」 이외에도, 「-암/엄-, -안/언-」을 비롯하여 「-음」 등이 있으나, 이 글은 전형적인 상 표지인 「-암시-」와 「-아시-」(및 「-느-」<sup>5)</sup>)만으로

3)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2장에서 다루겠다.

4) Comrie(1976: 3) 참조. 이 글에서 Comrie(1976)의 인용은 영어판에서 하였으나, 야마다 사에[山田小枝]의 일본어 번역판에서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그 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이 글은 이들 상 표지들의 형태 분석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형태 분석 여하를 떠나서, 상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거기에만 주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형태 분석을 도외시한 채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형태 분석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론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적들에 의존하기로 한다.<sup>6)</sup>

그리고 본고는 「-암시-」와 「-아시-」 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형태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밝혀 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는 추론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이들의 형성 과정이 현재의 제주도 방언의 문법을 설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 기원을 찾아야 하겠으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이들의 문법적 역할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3.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에서 보였던 문제점들, 특히 상 관련 용

5) 「-느-」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 표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상 표지로 보아야 함은 3장에서 논의하겠다.

6) 형태 분석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글은, 「-느-」에 관해서는 고 영진(2007: 80~91), 「-암시-」와 「-아시-」에 대해서는 문 숙영(1998: 5~8, 22~27)이다. 또한 「-암시-」와 「-아시-」의 형태음소론에 대해서는 정 승철(1997: 69~83)이 상세하다.

어와 그 개념들에 대하여 점검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바탕으로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우리의 작업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를 체계화하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상을 규명하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으리라는 데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sup>7)</sup>

## 2. 제주도 방언의 상 관련 용어와 개념 재검토

2.1. 앞서서도 보았듯이, 한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사는, 어렵잖아 헤아리더라도 이제 반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은 그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제, 서법과 더불어) 상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이들 범주들의 개념 정립에 관한 것이었다.”고 정리한 이 남순(1990: 379)의 언급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국어의 상 연구를 고스란히 집약하고 있는, 정곡을 얻은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제주도 방언의 상을 체계화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상 연구에서 하위 범주를 구분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던 의미적 기준을 두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한 이 호승(1997)이 좋

7) 최근 표준 한국어가 「시제-상-서법(혹은 양태)」의 삼원 체계임에 비하여, 15세기 한국어 및 제주도 방언은 「상-서법」의 이원 체계라는 논의가 있었는데(고 영진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직관이 작용하지 않는 15세기 한국어의 상 연구에 제주도 방언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더 커진다고 하겠다.

은 참고가 된다. 그는 기존의 연구에서 상을 하위 범주로 나누기 위하여 적용한 의미적 기준을, “상황의 시간적 발달 단계에 따라 하위 범주를 설정하는 시간적 기준”과,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전체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일부분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 하위 범주를 설정하는 총체성 기준”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이 호승 1997 : 11~12). 이 가운데에 후자의 「총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표준 한국어는 물론, 제주도 방언의 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훨씬 유효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총체성 관점 이전의 상 논의가 한국어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면, 총체성 관점은 일반언어학적인 측면을 더 고려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의 개별 언어적 특성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언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한국어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나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른바 총체성의 관점에서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간 이루어진 제주도 방언의 상에 관한 업적들을 일별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상 관련 용어와 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상에 관한 용어 및 그 개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방언의 상 범주를 체계화하는 것은 지난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2.2.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된 것들

은 다음에서 보는 「-아시/어시-」와 「-암시/엄시-」 등이다.

- (1) ㄱ.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시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 있니?)  
 ㄴ. 일하러 갔수다.<sup>8)</sup> (일하러 갔습니다.)<sup>9)</sup>  
 (2) ㄱ. 무시겨 먹엄시니? (뭐 먹고 있니?)  
 ㄴ. 밥 먹엄쨌. (밥 먹고 있다.)

(1)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가+아시+니+(이)」 및 「가+앗+수+다」로 분석이 되는데, (1)ㄴ의 「-앗-」은 (1)ㄱ의 「-아시-」의 변이형태이다. 그리고 (2)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먹+엄시+니+(이)」 및 「먹+엄ㅅ+저」<sup>10)</sup>로 분석되는데, (2)ㄴ의 「-엄ㅅ-」은 (1)ㄱ의 「-엄시-」의 변이형태이다.<sup>11)</sup>

(1)~(2)의 「-아시-」와 「-엄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는 현 평효 (1975/1985 : 12~56)에서 이루어졌는데, 「완료상」 및 「미완료상」이라는 용어도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 (3) ㄱ. 애긴 울엄저. (애기는 울고 있다.) (현 평효 1975/1985 : 19)  
 ㄴ. 난 밥 하영 먹엇저.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현 평효

8) 이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는 '가수다'로 적혀 있다. 이는 현 평효(1975/1985) 이래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표기이나, 이것은 '갔수다'로 적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상론하겠다.

9) 이상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1986 : 203)에서의 인용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지에서 제주도 방언의 예를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어 번역도 원문에 따랐다. 예문 (5)~(6)처럼 현행 맞춤법과 일치하지 않는 번역문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10) '먹엄쨌'와 같은 예에서 「-엄-」이 아닌 「-엄ㅅ-」을 최초로 분석해 낸 것은 이 남덕(1982 : 14)의 공헌이다.

11) (1)ㄱ의 「-아시-」의 변이형태로는 「-어시-」, 「-앗/엇-」이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아시-」를 대표형으로 잡는다. 그리고 (2)ㄱ의 「-엄시-」에는 「-암시-」, 「-암ㅅ/엄ㅅ-」이라는 변이형태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암시-」를 대표형으로 삼기로 한다.

1975/1985 : 29)

ㄷ. 자의 그 일로 조들압시네. (저 애는 그 일로 근심하고 있다.) (현 평효 1975/1985 : 35)

ㄹ. 철순 집의 가신게. (철수는 집에 가 있네.) (현 평효 1975/1985 : 45)

현 평효(1975/1985)는 (3) ㄱ~ㄹ의 밑줄 친 부분에서 「-엄-」, 「-엇-」, 「-압시-」, 「-아시-」를 분석해 내어 이들 각각에 「미완료상」(3ㄱ의 「-엄-」), 「완료상」(3ㄴ의 「-엇-」), 「미완료존속상」(3ㄷ의 「-압시-」), 「완료존속상」(3ㄹ의 「-아시-」)의 범주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언제나 그 발음이 [우름찌]인 (3) ㄱ의 ‘울엄저’(울고 있다)를 「울+엄+저」로 분석하여 여기의 「-엄-」을 (3) ㄷ의 「-압시-」와 다른 형태소로 보아 불필요하게 「미완료존속상」을 세운 점과, (3) ㄴ, ㄹ의 「-엇-」과 「-아시-」를 다른 형태소로 보고 「완료존속상」을 더 설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남덕 1982 : 14). 이를 극복하여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체계화한 업적이 이 남덕(1982)이다. 그리고 홍 종립(1991)은, 좀 독특하게 「-압시-」를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 속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실연(實演)하는”(홍 종립 1991 : 121) 「실연상」으로 설명하며, 「-아시-」에는 「결과상」이라는 범주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홍 종립(1991)의 「실연상」은, 우 창현(1998 : 15)이 적절히 비판하고 있듯이, 상의 기본적 특성인 장면의 내부 시간 구조와의 관련을 찾을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것은, 동사와 형용사를 함께 설명하려는 그의 태도에서 유래된,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말은, 용어 자체도 생경하거나, 문법의 설명을 위해서는 그만인 것으로, 일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암시-」와 「-아시-」의 의미는 문 숙영(1998)에 이르러 대부분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암시-」의 의미로는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 상태 지속, 상태의 점진적 변화, 현재 시제」를 들고 있으며, 「-아시-」의 의미로는 「결과상, 완료상(perfect), 완결상(perfective), 과거 시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암시-」와 「-아시-」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 창현(1998)은 「과정상」<sup>12)</sup> 및 「종결상」이라는 용어로 각각 「-암시-」와 「-아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과정상」은 내용상으로 선행 연구에서의 「미완료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종결상」은, 그것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아시-」라는 점에서는 앞선 연구와 일치하지만, 그 개념을 ‘상황의 끝부분을 가시화한 것’(우 창현 1998: 63~64)이라고 함으로써 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용어의 문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제주도 방언의 상 체계에 대하여, 현 평효(1975/1985)를 제외하고는,<sup>13)</sup> 대부분의 논자들이 「-아시-」와 「-암시-」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각각에 「완료상/미완료상(이 남덕 1982), 완결상/미완결상(문 숙영 1998), 종결상/과정상(우 창현 1998)」(및 결과상/실연상[홍 종립 1991]) 등의 명칭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물론 이러한 용어들로 제주도 방

12) 그 하위 범주로 「진행상」과 「지속상」을 설정하고 있다.

13) 현 평효(1975/1985)가 미완료상 「-암-」과 미완료존속상 「-암시-」, 그리고 완료상 「-앗-」과 미완료존속상 「-아시-」를 설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도 「-아시-」와 「-암시-」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14) 단, 뒤(3.3)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홍 종립(1991)은 「-암시-」가 「-아시-」

언의 상을 체계화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용어를 고집하는 한, 「완료」 혹은 그 대립 개념으로서의 「미완료」 등의 어휘가 가지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연상되는 오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완료나 완결 혹은 종결」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인 “끝마침”이나 “아주 완전하게 끝을 맺음” 혹은 “끝냄”(이상 한글 학회 1992: 3081, 3080, 3764)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가 끝났거나 혹은 끝냈음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현 평효(1974/1985: 28)는 「완료상」을 “동작 혹은 행동을 다 마쳤음”, “동작의 완료”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sup>15)</sup> 이 남덕(1982: 7)도 “완료상이나 회상법은 그 자체에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완료상」에 과거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립(1991: 126)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보인다. 그는 ‘창순 혹은 가서라(창수는 학교에 가 있더라)’를 설명하면서, 지각 장소가 학교일 경우에는 ‘가는’ 동작의 완료가 드러나는 것 같으나, 지각 장소가 집일 경우에는 ‘창수’가 집에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을 뿐 ‘가는’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뜻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우창현(1998)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기존의 업적, 예컨대 “이 호승(1997)에서는 「미완료」를 종결을 나타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종결된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결된 상황은 더 이상 「미

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5) 현 평효(1975/1985)가 말하는 「완료」가 perfect의 의미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3장에 나온다.

완료」된 상황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우 창현 1998 : 31, 각주 18). 따라서 “기존의 「완료」, 「미완료」와 같은 상 의미는 단지 이론적인 설명만을 위한 범주 설정으로 보아야 한다.”(우 창현 1998 : 31, 각주 18)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우 창현(1998 : 66)은, “국어에서 전체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는 경우는 종결된 사건이 과거에 나타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국어에는 따로 완료를 나타내는 관점상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완료는 과거 시제에 의해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종결」과 「완료」를 일상 언어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빚어진 오해라 할 수 있다.<sup>16)</sup>

물론 일상 언어를 학술 용어로 썼을 때에 그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상을 논의하는 경우에 사용된 용어들은,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일상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학술적인 의미로만 쓰였다고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간의 상 연구에서 「완료」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이) 행해지고 어떤 시점에서 「그쳤다」는 의미로서 「시간적으로 완료된(그친)」 행위”라는 뜻과, “동작의 모

16) 다만, 문 숙영(1998)은, 「완결상」을 perfective의 의미로, 그리고 「미완결상」은 imperfective의 의미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문 숙영(1998 : 75)은 “완결(perfectivity)은 상황의 내적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상황을 단일한 전체로 보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어서 그녀는, ‘철수는 말랐어’와 같이 「-었-」이 쓰였어도 과거 상태가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 및 ‘넌 내일 죽었다’처럼 미래 상황에 결합되는 「-었-」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결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문 숙영 1998 : 75). 또한 그녀가 들고 있는 제주도 방언의 「완결상」의 예도, 위의 표준 한국어의 제주도 방언에 해당하는 ‘가인 말랐쩌’나 ‘넌 내일 죽었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문 숙영(1998)에서는 개념과 실제의 괴리가 엇보인다고 할 것이다.

든 국면이 동작 주체나 대상에 가해져서 더 이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다」는 의미로서 「동작의 주체나 대상에 대한 완료된(끝난)」 행위」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 왔다는 이 남순(1998 : 113)의 언급은, 표준 한국어의 경우에 대한 비판이나,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시제적인 의미의 「완료」와 상적인 의미의 「완료」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시제와 상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이 남순 1998 : 113).

2.4.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완료」를 일상 언어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완료」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결과 상을 논의한다면서도 실은 시제를 논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상 관련 용어와 그 개념 정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상 관련 용어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것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상 관련 용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perfective’와 ‘imperfective’를 들 수 있는바, 이들 각각에 대하여 필자는 완전상과 불완전상이라는 술어를 쓰고자 한다.<sup>17)</sup> 그리고 ‘perfect’에

17) 이 용어는 이 기동(1992 : 13)에서 이미 쓰인 바가 있다. 영어의 시제와 상을 다루고 있는 이 기동(1985, 1992)에는 용어상의 불일치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 기동(1985 : 92~93)에서는 「완전상/미완전상」을 쓰고 있음에 비하여, 이 기동(1992 : 12)에서는 「완전상/불완전상」이라는 용어와 함께 같은 페이지에 「미완전상」이라는 말도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완전」의 대립 개념은 「미완전」이 아니

해당하는 것으로는 영문법 등에서 익숙한 완료상을 쓰기로 하는데, 기존의 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완료상은 「완료상」으로 적어 구분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들의 개념 문제이다. 먼저 완전상이란, 장면(situation)의 내부 구조를 구별함이 없이 장면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Comrie 1976: 4)으로, 내적인 시간 구성과 무관하게(Comrie 1976: 12)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의 모든 부분을 단일한 전체(as a single whole)로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Comrie 1976: 18). 반면, 불완전상은, 장면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며, 따라서 장면의 시작이나 끝을 되돌아 볼 수도 있고, 시작이나 끝과 상관없이 장면이 전 시간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Comrie 1976: 4). 다시 말해서, 완전상은 사건의 진행에서 「시작-전개-종료」라는 각 국면(phase)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한 덩어리로 파악한다는 의미로,<sup>18)</sup>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라 「불완전」이라 보고, 이 글에서는 「불완전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기로 한다.

- 18)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사건의 진행에서 「시작-전개-종료」라는 구분은 동사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지, 그리고 ‘시작-전개-종료」의 3단계 과정을 가지지 않는 동사와 상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 상 형태소들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떠한 언어에서든 모든 동사가 다 상적 대립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일본의 에히메(愛媛)현 우와지마(宇和島) 방언도 제주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perfective-imperfective-perfect」의 삼항 대립을 보이나, ‘알다’와 같은 지각 동사에서는 이러한 상적 대립이 중화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구도 1995: 285).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동사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착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를 체계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결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개념인 불완전상은 사건의 시작 및 종료 단계를 무시한 중간 단계, 즉 장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자 한다.<sup>19)</sup> 그리고 완료상은 “어떤 특정한 기준 시점에 있어서 그 보다 전에 실현된 운동이 계속 관여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구도 1995: 99)으로 정의한다.<sup>20)</sup>

19) 이것은 물론 Comrie(1976)를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관점은,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1977/1985, 1978/1985), 구도 마유미[工藤眞由美](1996) 등 일본어의 상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본고는, Comrie(1976)를 비롯한 서구에서의 상 연구와 함께, 일본에서의 상 연구에 크게 빚지고 있다. 일본어의 상 연구는 그 전통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룩해 놓은 업적들은 상당한 깊이가 있다. 이른바 전전(戰前)의 논의들을 제외한 패전 후의 연구만 해도 「언어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상 연구는 그 질과 양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언어학적으로 상에 대한 관심이 짙은 것은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어 연구에서인데, 「언어학 연구회」의 일본어의 상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어의 상 연구를 깊이 섭렵하고 이해한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그들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것은 긴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 편(1976)에 집대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나온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1977/1985, 1978/1985)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일본어의 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일본어의 상 연구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구도 마유미[工藤眞由美](1995)는, 오쿠다(1977, 1978)의 비판을 수용하여 현대 일본어의 시제와 상을 텍스트와 관련지어 논의한 것인데, 개별 문장 단위를 넘어서 텍스트 수준에서 상(및 시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 냄으로써, 일본어의 상 연구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Comrie(1976: 12)는 완료상을 “현재에 관계가 있는 과거의 장면, 즉 과거 사건의 결과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좀 더 일반성이 있는 구도(1995)를 따른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구도(1995: 97)가 「완료」 대신에, 「パーフェクト」(퍼펙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종래의 일본 문법에서 써 온 「완료」라는 말이 ‘シタ’(했다) 형식에만 쓰여 「현재 완료」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데에 비하여, 오히려 ‘シテイル(シテイタ)’(하고 있다[하고 있었다]/해 있다[해 있었다]) 형식이 더 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다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 3.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

3.1. 제주도 방언의 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상을 나타내는 형태소들에 대한 의미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앞 (2장)에서 확인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암시-」와 「-아시-」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각각 「미완료상(혹은 미완결상)」 및 「완료상(혹은 완결상)」 등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아 주기 바란다.

- (4) ㄱ. 이 지실은 씩는다. (이 감자는 썬다)  
      ㄴ. 이 지실은 씩엿쨌. (이 감자는 썬고 있다.)  
      ㄷ. 이 지실은 씩엇저. (?이 감자는 썬어 있다.)

(4)ㄴ의 밑줄 친 부분은 「씩+엿+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의 「-엿-」은 ‘썬고 있다’라는 표준어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완전상(imperfective)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용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4)ㄷ의 밑줄 친 부분은 「씩+엇+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엇-」은 표준어의 「-어 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썬었고, 그것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현재 완료(present perfect)에 해당한다. 따라서 「-암시-」와 「-아시-」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전자는 불완전상임에 비하여, 후자는 ‘perfect’라는 뜻에서의 완료상이기 때문이다.

3.2. 「-아시-」가 현재 완료, 즉 완료상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현 평효(1975/1985)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5) ㄱ. 가의도 밥 먹었수가? (그 애도 밥을 먹었습니까?)

ㄴ. 오, 먹었져. (오, 먹었다.) (이상 현 평효 1975/1985 : 49)

(6) ㄱ. 그거 보아수가? (그것 보았습니까?)

ㄴ. 그 일 다 했여수가. (그 일 다 했습니까?) (이상 현 평효 1975/1985 : 50)

(5)ㄱ의 밑줄 친 부분을 현 평효(1975/1985 : 49~50)는 「먹+었ㅅ+우+가」로 분석하고, (6)ㄱ, ㄴ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보+아ㅅ+우+가」 및 「했+여ㅅ+우+가」로 분석한다.<sup>21)</sup> 그리고 나서 그는, (5)ㄱ에서 분석되어 나온 「-었ㅅ-」의 밑줄 친 「ㅅ」을 「-아ㅅ-」의 밑줄 친 「ㅅ」의 변이형태로 보고(현 평효 1975/1985 : 49), (6)에서 분석한 「-아ㅅ-」의 「ㅅ」도 「ㅅ」의 변이형태라고 말한다(현 평효 1975/1985 : 44, 50). 그리하여 이들에다가 「완료존속상」, 즉 “어떤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완료된 상태가 존속되어 나감”(현 평효 1975/1985 : 45)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형태 분석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아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설명하려는 현 평효(1975/1985)의 시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5)ㄱ과 (5)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5)ㄱ, ㄴ은 현 평효(1975/1985 : 49)에서 질문과 대답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예인데, 그는 (5)ㄴ의 밑

21) 현 평효(1975/1985)는 「-았ㅅ-」, 「-아ㅅ-」 등을 다시 「-았+ㅅ-」, 「-아+ㅅ-」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5)ㄱ을 분석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료상」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긴 젓 하영 먹엇저’(애기는 젓을 많이 먹었다)를 예로 들면서, 여기서의 ‘먹엇저’는 “먹는 동작을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라고 말한다(현 평효 1975/1985: 28~29). 그런데 (5)ㄱ, ㄴ의 ‘먹엇수가?’와 ‘먹엇저’의 차이는, 서법상 의문법과 서술법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높임상으로 전자는 높임(홉서체)이고 후자는 낮춤(헉라체)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도, 표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높일 경우에는 「홉서체」의 물음에 「홉서체」의 대답이 가능하다. 다음이 그 예이다.

(7) ㄱ. 가의도 밥 먹엇수가?

ㄴ. 예, 먹엇수다. (예, 먹었습니다.)

게다가 (6)ㄱ, ㄴ의 밑줄 친 부분은, 그 발음이 언제나 [보아쑈]와 [헉여쑈]이지, [보아수가]나 [헉여수가]로 발음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의 표기는 ‘보앗수가, 헉엇수가’로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만일 ‘보앗수가, 보아수가’에 의미차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8)ㄱ의 질문에 대하여 (8)ㄴ~ㄷ의 대답이 모두 가능하며, 이들 사이에 적어도 상적인 의미차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8) ㄱ. 그거 보아수가? (그거 보셨습니까?)

ㄴ. 예, 보아수다. (예. 보았습니다.)

ㄷ. 예. 보앗수다. (예. 보았습니다.)

ㄹ. 오. 보앗저. (응. 보았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 평효(1975/1985)가 설정한 「완료상」과 「완료존속상」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시냐?’라는 질문에 ‘예, 먹었수다’와 같은 대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 평효(1975/1985)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앗-」과 「완료존속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앗ㅅ-, -아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둘은, 현 평효의 용어로는 모두 「완료존속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sup>22)</sup>

그렇다면, 이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완료상(perfect)이라고 본다. 다시 이에 대한 현 평효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현 평효(1975/1985: 50)에 따르면, (5)ㄱ의 ‘먹었수가?’는 “먹는 동작을 끝마쳐서 그 끝마친 상태대로 존재해 있습니까?”라는 뜻이고, (6)ㄱ의 ‘보아수가?’는 “보는 행동을 끝마쳐서 그 끝마친 상태대로 존재해 있습니까?”라는 의미이며, (6)ㄴ의 ‘햏여수가?’는 “하는 행동을 다 끝마쳐서 그 끝마친 상태대로 존재해 있습니까?”라고 설명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특정한 기준 시점에 있어서 그보다 전에 실현된 운동이 계속 관여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구도 1995: 99)으로 정의되는 완료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처럼, 「-아시-」는, 지금까지의 논자들이 말하는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완료상」이 아니라, 본고에서 말하는 ‘perfect’라는 뜻에서의 완료상이다. 그러므로 「-아시-」는 「-암시-」와 직접적인 이항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22) 현 평효(1975/1987)가 이와 같이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높임의 형태소로 「-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만 인정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잇수다’(잇습니다), ‘곱수다’(곱습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높임의 형태소로 「-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 영진(2002)을 참조할 것.

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불완전상은 완전상에 대립되는 것이지, 다른 상적 표현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3. 그렇다면, (4)ㄴ의 불완전상 ‘씩엄쨌’와 대립되는 상적 표현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 필자는 (4)ㄱ의 ‘씩은다’가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와 입장은 다르나, 홍 종립 (1991 : 119~123) 에서도 「-암시-」는 「-아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느-」와 대립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느-」(‘씩은다’의 「-은-」)를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양태를 나타내는 요소와 상을 나타내는 요소가 서로 대립한다는 뜻이 되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근거를 찾아 내야만 한다.

먼저, (4)ㄱ의 ‘씩은다’는 우리가 앞에서 본 완전상의 정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그 첫째 근거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씩은다’는, 감자가 썩는 동작의 각 국면을 「시작-전개-종료」를 구분함이 없이, 전체를 하나로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씩은다’가 시제상으로 현재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제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섰을 때에는 과거, 나중일 때에는 미래, 그리고 일치할 때에는 현재가 되므로, 현재는 시간의 폭을 가질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완전상이 나타내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일정한 시간량을 갖춘 운동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미래라든가 과거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의 직후 또는 직전부터 시작하여 양쪽으로 펼쳐지는, 각각 기다란 폭을 가진 시간대임에 비하여, 현재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상으로 표현되는 운동의 모습은 미

래 또는 과거라는 시간대에 포섭될 수는 있어도 현재라는 순간에 포괄될 수는 없다.”<sup>23)</sup>는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은/ㄴ(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즉 「-은/ㄴ(다)」는, 운동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제상으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제주도 방언의 「-은/ㄴ(다)」가 완전상임을 말해 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텍스트에서의 기능을 보아도 「-은/ㄴ(다)」는 완전상임을 알 수 있다. 구도(1995 : 22~24)에 따르면, 야콥슨(Jakobson 1957)에 의하여 제안된 택시스(taxis), 즉 시간적 순서성이야말로 상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완전상은 계기성을 나타내고, 불완전상(계속상)은 동시성을 나타내며, 완료상은 후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현대 일본어를 자료로 하여 훌륭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구도 1995 : 161~162).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9) 원천강(袁天綱) 내여논다. 오행팔괘(五行八卦) 내여논다. 초장(初張) 걸어간다. 이장 걸어간다. (현 용준 1980 : 147)

위 예문의 밑줄 친 부분들은 모두 계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원천강’을 내 놓은 다음에 ‘오행팔괘’를 내 놓았고, 이어서 ‘초장’을 걷고, 다음에 ‘이장’을 걷는 순서로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9)의 ‘내여논다, 걸어간다’가 완전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23) 다카하시 다로[高橋太郎](2003 : 107). 이와 같은 내용은 일찍이 오쿠다(1978/1985)에서 지적된 것이었다. 그리고 오쿠다(1978/1985), 구도(1995), 다카하시(2003) 등은 perfective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성상(完成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첨언해 둔다.

- (10) 기영<sup>ㅎ</sup> 건 저 밧디 바레<sup>여</sup>보라. 아옴췌예 아옴장남 거느런 밧을 갈압시네. (현 용준 1980 : 362) (그러거든 저 밧을 바라보라. 아옴 마리의 소에, 아옴 명의 머슴을 거느리고 밧을 갈고 있지 않느냐?)
- (11) 먼문 뻗기 나간보난 문도령이 사시나네. (현 용준 1980 : 323) (멀리 문 밖에 나가 보니, 문 도령이 서 있으니)

(10)의 ‘갈압시네’는, 「갈+압시+네」로 분석할 수 있는데, ‘밧을 바라보는 것’과 ‘머슴들이 밧을 가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1)의 ‘사시나네’는 「사+아시+나네」로 분석되는 것인데, 여기의 「-아시-」는 이른바 후퇴성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문 밖에 나간 것’보다 ‘문 도령이 서 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의 「-압시-」는 불완전상의 표지이고, (11)의 「-아시-」는 완료상의 표지임을 알 수 있다.

3.4. 이제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를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12)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각각에 대하여 편의상 동사 ‘하다(하다)’의 활용형을 그 대표로 보이기로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서술·의문·명령·청유의 각 서법에 따라 나타나는 상의 모습을 제시하겠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서술법과 의문법은 「단정(-은/ㄴ다, -저)」, 추정(-으크-), 회상(-아/어-)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도표화하겠다.<sup>24)</sup>

24) 이들의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 문제는 다음의 글들로 미룬다. 서법 전반에 관해서는 현 평효 (1975/1985 : 106~126), 서술법과 의문법에 대해서는 각각 홍 종립 (1994)과 홍 종립 (1975)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으크-」는 김 지홍(1992), 「-아/어-」는 고 영진(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 (12)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

상 서법		완전상 (perfective)	불완전상 (imperfective)	완료상 (perfect)
서술	단정	흔다	흔 얹찌	흔 었저
	추정	흔 키여	흔 얹시키여	흔 여시키여
	회상	흔 여라	흔 얹서라	흔 여서라
의문	단정	흔 느냐?	흔 얹시냐?	흔 여시냐?
	추정	흔 크냐?	흔 얹시크냐?	흔 여시크냐?
	회상	흔 여냐?	흔 얹서냐?	흔 여서냐?
명령		흔 라	흔 얹시라	흔 여시라
청유		흔 게	흔 얹시게	흔 여시게

위의 표를 보면,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는 서법과 연관을 지으면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은 제주도 방언의 상 체계가, 지금까지의 논자들이 말해 왔던 것처럼 「-암시-」와 「-아시-」 혹은 「-느-」와 「-암시-」의 이항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와 「-암시-」와 「-아시-」의 삼항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5)</sup>

## 4. 맺는 말

4.1.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왔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체계를 “{느}:{엇}:{없}=[+완전, 0]:[-완전, +완료]:[-완전, -완료]”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 드린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지금까지의 제주도 방언의 상 연구에 사용된 용어 및 그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의 업적들에서는 상 관련 용어들이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상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임을 확인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상 관련 용어들이 이처럼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실은 시제를 다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 관련 용어로는 시제상으로 보아 끝남 혹은 끝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완전상, 불완전상」(및 완료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그 개념은 콤리(Comrie 1976)와 구도(1995)에 따랐는데, 완전상은 사건의 진행에서 「시작-전개-종료」라는 각 국면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파악한다는 의미로, 불완전상은 사건의 시작 및 종료 단계를 무시한 중간 단계, 즉 장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한 완료상은 특정한 기준 시점에서 그보다 전에 실현된 운동이 계속 관여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른바 총체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를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은 범언어적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상 표지로 보아 오지 않았던 「-느-」를 완전상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대립되는 불완전상으로 「-암시-」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적인 의미보다는 시제적인 의미에서의 완료, 즉 과거 시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온 「완료상」이 이른바 ‘perfect’라는 뜻에서의 완료상임도 밝혔다.

4.2.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도 물론 많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상적 의미는 무척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별 동사들의 의미에 따라 구체화되며, 그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동사 분류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인 본고에서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첫째 과제는 바로 이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상의 하위 범주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일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과 동사의 분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새삼스럽게 들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문법 형태소는 기본 의미와 더불어 파생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 방언의 상 표지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나타내는 상 범주 가운데에 언어보편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는 완전상과 불완전상, 그리고 완료상을 기본상이라 한다면, 이들이 문맥에 의하여 새로운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파생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상의 파생적 의미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느-」와 「-암시-」, 「-아시-」가 상 표지라면, 이들이 형용사나 지정사와 함께 쓰였을 때에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형용사나 지정사는 상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들이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상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에 대한



것도 본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 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보정판).
- 고 영진. 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회상법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009~1024쪽.
- 고 영진. 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 한글학회. 7~43쪽.
- 고 영진. 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275. 한글학회 77~106쪽.
- 김 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 김 지홍. 2002. 「{-졌-}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제주도 언어민속 논총. 제주문화. 33~98쪽.
- 김 차균. 1999.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 남 기십. 1978.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문 숙영. 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 연구 151호. 국어연구회.
- 문 숙영. 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 형태론 6권 2호. 형태론 편집위원회 엮음. 도서출판 박이정. 293~316쪽.
- 서 정수. 1996.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수정 증보판).
- 우 창현. 1998. 「제주 방언의 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우 창현. 2005. 「제주 방언의 ‘-느-’에 대하여」, 형태론 7권 2호. 형태론 편집위원회 엮음. 도서출판 박이정. 387~402쪽.
- 이 기동. 1985. 「영어의 진행형과 현재형의 연구」, 연세 논총 21. 연세대학교 대학원. 81~100쪽.
- 이 기동. 1992. 『영어 동사의 문법』. 신아사.
- 이 남덕. 1982. 「제주 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체계에

- 대하여」, 논총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7~54쪽.
- 이 남순. 1990. 「상」,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379~387쪽.
- 이 남순. 1998. 『시제·상·서법』 도서출판 월인
- 이 승녕. 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 호승. 1997.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 효상. 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 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207~250쪽.
- 정 승철. 1997. 「제주도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67~107쪽.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학술 조사 보고—설화」,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88~216쪽.
- 최 동주. 1995. 「국어 시상 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 현배. 1982. 『우리 말본』. 정음사(아홉 번째 고침).
- 한 동완. 1991. 「국어의 시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 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현 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 현 평효. 1975/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현 평효(1985: 3~133).
- 현 평효. 1985. 『제주도 방언 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홍 종립. 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8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48~226쪽.
- 홍 종립. 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홍 종립. 1994. 「제주 방언의 평서법 어미에 대한 고찰(1)」,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05~727쪽.
- 한글 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 1977. 「アスペクト研究をめぐって—金田一的

- 段階』, 오쿠다(1985: 85~104).
-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 1978. 「アスペクト研究をめぐって」, 오쿠다 (1985: 105~143).
-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 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むぎ書房.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편역. 1990. 『動詞アスペクトについて(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편역. 1992. 『動詞アスペクトについて(Ⅱ)』,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 긴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 편. 1976.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 구도 마유미[工藤眞由美]. 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 ひつじ書房.
- 다카하시 다로[高橋太郎]. 1985. 『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國立國語研究所報告 82), 秀英出版.
- 다카하시 다로[高橋太郎]. 2003. 『動詞九章』, ひつじ書房.
- 하마노우에 미유키[浜之上隼]. 1991. 「現代朝鮮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 朝鮮學報 138輯, 朝鮮學會, 1~93쪽.
- 야마다 사에[山田小枝] 역. 1988. 『アスペクト』, むぎ書房.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Ö.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Basil Blackwell.
- Jakobson, R. 1957/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Russian Verb」, Jakobson(1971: 130~147).
- Jakobson, R. 1971. *Selected Writings II*. Mouton.
- Lee, Hyo 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고 영진

610-0394

日本 京都府 京田辺市 多々羅 都谷 1-3

同志社大學 言語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准教授

누리편지: yko59@hotmail.com

<abstract>

## For the Study of the Morphological Aspect System in Cheju Dialect

Ko Young-jin

This paper is aimed to explain the morphological aspect system in Cheju dial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reexamined the term and the conception of aspect. Because, most of the articles which treated the aspect of Cheju dialect have been used the aspectual terms without strict definition, and they led to the confusions. Furthermore, we can not help saying that the earlier studies of aspect in Cheju dialect are the studies of tense in f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aspect. According to Comrie(1976) and Kudo(1995), we define *perfective* as 'denoting complete action with beginning, middle, and end', *imperfective* as 'the situation that lasts through all the time without any beginning and without any end', and *perfect* as 'the situation that had happened before the past of the reference time has lasted.'

Secondly,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we considered '-ni-' as perfective, '-amshi-' as imperfective, and '-ashi-' as perfect.

\* **Key words:** aspect, perfective, imperfective, perfect.

〈논문 받은 날: 2008. 3. 26.〉

〈논문 심사한 날: 2008. 4. 30.~5. 26〉

〈신기로 한 날: 2008. 5. 28.〉